

제
10
호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6월과 건강한 신앙

1950년 6월은 우리들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쟁도발로 1천만 이상의 가족들을 갈라놓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갔으며 남과 북의 형제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죽이고 또 죽였다. 삶을 찾아 남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피난민들은 총탄과 포탄에 쓰러져 갔으며 의지할 곳 없고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심중에 남은 가냘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난국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였다.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동안 교회들은 위축은 듯 숨을 죽이고 종소리도, 예배도 없는 암흑기를 침묵으로 보냈다. 이 때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처럼 한마디 반응도 없이 무능하였다.

교회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자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풍전동화와 같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락한 존재였으나 그 신앙심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담대하고 용기있는 최고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6·25세대는 당시의 절박함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목숨을 구해주시면 주님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말았으며 지옥같은 암흑기가 지나고 평화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돈맛에 정신팔려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배신자, 사기꾼에 비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경제부흥에 발맞추어 교회는 부흥되어 갔으나 돈의 마력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만약, 물질과 직위를 상위에 놓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참교회가 아닐 것이다. 우리교단 우리교회는 좋고 상대교회는 나쁘다는 인식의 심화현상은 부끄럽고 위험한 사고일 것이다. 이 단성이 없는 교회라면 상호인정되고 존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 모습이었으며 결

집된 역량으로 3·1운동, 경제부흥 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1백여 교단으로 분열되었던 장로교회가 통회자복하고 3년전부터 한국장로교회 연합회를 조직하고 연합하여 예배하는 등 하나되는 일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모든 신자들이 상대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한형제적인 인식을 가지고 서로 위로 격려하며 존경할 때 하나의 교회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큰교회는 작은교회를 경이 여기고 작은교회는 큰교회를 비난하려는 사고가 계속된다면 진정한 연합은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수가 정체되고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 믿는 교인은 극소수이고 기존교인들이 유동인구로 여러 교회를 넘나든다면 크고 작은 교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느 모임에서 북한지역교회는 무너졌다는 말에 대하여 한 강사 목사는 "사실상 무너진 것은 남쪽교회이며 북

쪽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며 부패한 곳에 늘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6·25와 같은 징계의 채찍을 주시고 거두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명령을 지키려는 것보다 교회의 조직과 힘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원하는 왜곡된 신앙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펼쳐 버릴 수가 없다.

가진 것 없고 배고플 때에 기독교인들의 진실한 신앙심은 살아 있었는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배가 부른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 싶다.

6·25전란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으나 기독교 신앙면에서 참 믿음을 깨우치는 값진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6월을 상기하면서 부정과 부패, 허례허식, 사치와 낭비, 나쁜 복을 누리겠다는 기복적 신앙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시민사회를 살리는 일에 솔선하므로 시민들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 성시화 운동 본격 출범

한남대 대학교회에서 목사·시민 300명 참가

1998년 11월 26일 창립한 대전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박문수 목사, 본부장 박세현, 신운표 장로)는 6월 1일~6일 까지 "제1회 대전성시주간 범시민대회"를 마련하고 시내교회, 충무체육관, 대전역 감천둔치 등 옥내외에서 새천년 새대전을 여는 성시화 주간의 햇볕을 높이 들어 올렸으며, 대전 시민과 기독교인들은 성시화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기좋은 새대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관심을 모았다.

대전은 성시화운동의 대전제를 ①사도행전적 운동으로 성경·전도·기도·말씀·믿음·사랑 ②복음화 운동에 두고 있다.

6월 1일 오후7시 한남대 대



학교에서 열린 "성시토론회"는 8명의 토론자의 심도있는 토론 전개로 성시화 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춘천성시본부장 조남진 장로의 주제발표는 지난 27년간 몸소 체험한 성시화운동의 필요성과 문제점 전개방향 등 장단점을 함축한 살아있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공감과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성시주간에는 6월 1일 성시토론회, 6월 2일 성시연합집회, 6월 3일 성시특별찬양, 6월 4일 성시기도회, 6월 5일 성시무료진료, 성시환경운동 및 성시선언문낭독, 6월 6일 성시연합집회를 가지므로 대전 전역에 성시화운동의 불을 조성하였다.

(제공/신종철 성시신문위원)

춘천지역 장로교회 연합대회

- 바자회, 걷기대회 수입 2백만원 이웃 도와 -

춘천장로교연합회장 임신영 목사(동부교회), 대회장 박상호목사(제일교회)는 5월 22일 장로교회 연합행사로 춘천농공고 운동장에서 1일 운동회

를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 및 아나바다 바자회로 얻은 200만여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자연속에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장로교인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

(약1:1~12 성시기도모임 설교요약)



사 공 정 목사
중앙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면 춘천시 민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전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지붕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의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한 농촌에서 젖먹이 아이를 낳던 위에 눕혀두고 일하는데 큰 독수리가 아이를 집어 들고 높은 산 벼랑 꼭대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도 줄을 잘 타는 선원출신도 모두 다 중도에 포기하였는데 한 여인이 사력을 다해 절벽을 기어올라 독수리의 발톱에서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용감한 여인은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는 이 도성의 모든 영혼을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

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네 명의 친구들은 바로 춘천성시화를 위해 매주 모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춘천을 사랑하는 애정이 없이는 이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춘천성시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춘천이 많이 성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모집사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주일날 가게문을 닫는데 집사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춘천성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애정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특별한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춘천의 많은 심령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으로 신앙생활 돕는 장로님



김 동 열 장로
춘천평화감리교회

춘천 평화감리교회 김동열 장로님은 공직에서 명예퇴임한 후 간증집회로 복음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1980년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신앙성장은 누구보다도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 술과 담배로 낙을 삼고 살았으며 교회에 나가는 부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 권사인 셋방주인의 전도를 받고 체면 때문에 바로 집앞에 있는 개척교회(평화교회)에 나가보았다.

젊은 목사(한 군)는 아두것도 모르는 그를 붙잡고 가르쳤으며 시간이 흐

르면서 그의 신앙도 자라게 되었다.

장로님은 최후의 고통으로 매년 여름철이면 며칠씩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10여차례 기도를 받고 낫았으며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었다고 말한다.

한목사님을 도와 충성 봉사한 결과 장로가 되었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으며 오늘과 같은 큰 교회로 부흥하였다는 것이다. 평화감리교회는 급성장한 모델교회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는 목회자와 협력자들의 회생 봉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장로님의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에 은혜받은 소문이 알려지자 도내 시·군, 충북지역교회 등에서 간증집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6월 6일에도 오후 8시 강촌감리교회(석정기 목사)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초청받고 간증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을 일깨워 주었다.

장로님은 자기자랑의 간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심정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조선하 기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6:10~12절)



조 은 제 장로
베드로정형외과병원

이 말씀을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4가지 종류의 사단조직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춘천에 300여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배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천사로서 창조하셨고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신저의 역할로 통신분야를 맡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준 가브리엘이 대표입니다.

둘째로 전쟁하는 천사들인 하늘의 군대입니다. 엘리사가 많은 적군과 대치할 때에 천군천사가 함께있는 것을 보고 승리감을 느꼈는데 미가엘이 그 대표입니다.

셋째는 하늘의 천양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천사들입니다. 대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창조주를 배반하고 1/3의 천사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내려와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뽐내는 것을 좋아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으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종교, 철학, 이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이런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두번째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불손하고 불만, 초조하고 상대방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대부분 귀신들린 사람입니다.

세번째 나의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열등감, 두려움, 불신 등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을 통한 간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저들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닭이 주는 교훈

우리는 흔히 닭은 고마운 동물로 알고 있다. 충성스럽게도 새벽 제시간만 되면 모든 피조물에게 기상나팔을 불어준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동물이다. 더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깨닫게 하지 않았는가. 춘천에 닭처럼 주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

그런데 닭이란 동물은 자신이 파멸되어 감을 모르는 미련함을 갖고 있다. 밤새 회에 앉아 잠을 잘 때 쥐가 와서 궁둥이를 파먹어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는 것이 닭이다. 베드로를 통곡하게 한 닭이었으나 자신의 멸망을 깨

닫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열심은 헌신과 지혜에 있다. 이 열심은 앞에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뒤로 숨을 때가 있고 밤이슬을 맞으며 기도할 때가 있다.

교회에서 열심 내는 이들이 왕따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어쩌하여 충성이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께 대한 충성이 최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고 절제해야 하며 겸손해야 함을 잊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독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닭의 교훈을 잊지 말자. (편집부 K목사)

기독교계 뉴스

HOLY CLUB 창립 3주년 예배

6월 19일 오후 5:30 베어스타운

춘천 홀리클럽(회장 조남진, 총무 신종철)은 6월 19일(토) 오후 5시30분 삼천동 베어스타운에서 창립3주년 기념대회 및 감사예배를 드린다. 예배에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회원, 교계 지도자, 직장선교회원들과 창립시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양인평 장로, 전용태 장로와 타지역 홀리클럽 회원들이 동참하여 전국적인 클럽의 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였으며 창립 당시 설립계인사 80명의 회원

을 가졌던 모습으로 갱신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날 특별프로그램으로 기독교 연예인들과 찬양단의 출연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즐거움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 복음가수 : 박영진, 박정미
- 텔런트 : 정대홍, 이금주
- 유희동 : 이계숙, 정소피아
- 갈릴리국악선교단, CBS소년소녀합창단

군민 구국기도회가 열린다

- 2군단 기독인, 춘천성시화 기도회원 합동 -

6월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2군단 한빛교회(박영수 목사)에서 군인 성도들과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회원들이 함께 국가와 민족의 당면한 과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기로 하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군단식당에서 군민(軍民)이 함께 식사를 한 후 예배와 기도회를 가지며 예배인도와 설교는 군목회에서 담당하고 합심기도와 대표기도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에서 담당하게 된다.

효자2동 노인 경로관광으로 칭송받은 교회

- 노곡 노인정 노인 78명 에버랜드 구경 -

동원감리교회(정상문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네 어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5월 13일 차량·음식 등 용인 에버랜드에 관광으로 노인들을 모시는 일에 모범을 보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서광자 효자2동장의 주선으로 노곡 노인정과 자매결연을 맺은 동원교회는 경로자세로 봉사하고 복음으로 노인들의 구령에 힘쓰고 있다.



교회 노인들에게 1일관광 호도 실천

동원감리교회(정상문 목사)는 5월 11일 65세 이상의 교회 소속 노인 40명에게 "원주 드림랜드" 관광을 시켜

주요 호도의 모습을 후세들에게 보여주었다.

전국직장선교대회 사례발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이영규 장로)는 6월 26일 오후 3시 대전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직장선교연합회 99선교대회에 춘천연합

회 대의원들과 함께 선교대회에 참석하며 전국직장 기독교인들에게 춘천의 사례를 발표한다.

성경을 무료 보급하는 기드온 협회

- '99상반기 성경 6만2천권, 모금 800만원 -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제3지구 대회가 속초 캠프 주관으로 5월 24일 오후 1시 양양 낙산 비치호텔에서 회원 105명이 참가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개회예배에서 정원채 전국회장은 "성경 반포사업으로 영혼 구원의 선자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캠프별 사업보고와 교육(기드온 사역의 실제방법 및 사명)이 있었다.

국제 기드온협회는 1899년 7월 1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시작되었고 172개국에서 22만8천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경 8억9천만권을 보급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10월 22일 조직되고 전국에 65개 캠프가 있으며 2천2백52명의 회원이 성경 4천만권을 무료 배포하였다.

강원지역은 5개 캠프(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184명의 회원이 금년 상반기에 성경 6만2천권과 현금 8백만원을 하였고 년내에 10만권의 성경배포와 70교회 순방예배, 모금 3천

6백만원, 회원 20명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드온협회는 봉사와 헌신으로 전도하며 성경무료보급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호텔 병원 학교 교도소 등에 비치하고 군인 간호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7월 10일부터 미국 내쉬빌에서 국제 기드온협회 창립1백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3차 전국대회가 10월 15일~1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춘천지역 기드온 캠프협회는 전원 장로회원(19명, 13교회)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장로교회) 한석기, 김홍규, 김태권, 이춘석, 마철규, 맹영웅, 박영희 (성결교회) 남궁 수명 (순복음교회) 최충인, 조은제 (감리교회) 노재찬, 이영일, 이학규, 이호승, 안 민, 심재환, 김기태, 유태희, 심인섭 등이다.

(제곡/김기태장로 본지 지도위원)



강촌감리교회 석정기 목사

•간증집회 : 6월 6일 8시 본교회당에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평화감리교회 김동열 장로님을 초청 신앙간증 집회를 갖고 전교인들의 믿음에 불을 지피는 시간을 가졌다.

•6월 6일~13일 "금주의 기도제목"

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드렸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춘천벤엘감리교회 벤엘성서대학 개강

•6월 13일 벤엘 성서대학 개강식을 주일 예배시간에 가졌으며 입학생 전원은 정장(한복, 신사복) 차림으로 참석하였다.

•전교인 가족찬양대회가 7월 18일 오후 7시 30분 찬양예배시에 있을 예정이다.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6월 20일 오후 7시30분 평화감리교회당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열리며 춘천지역의 뜻있는 성도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음악회 출연진은 "이광희, 다윗과 요

나단, 이정림, 아침" 찬양단들이며 사단법인 밀알선교회(심장병 어린이 재단)가 주최하고 평화교회가 주관하며 소조 건축디자인이 협찬하고 있다.

기독교계 뉴스

■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 임택창 목사(전국경목실장협의회 회장)는 5월 24~25일 속초에서 열린 강원도 경목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 5월 29일 오후 3시 중등부실에서 교회학교 교사와 교회지도자(장로 전원) 간담회를 가지고 7월에 있는 여름성경학교 및 교회학교 운영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 그리고 석사교회 가족찬양대회가 6월 13일 주일 저녁 교회당에서 있었다.
- 제13회 남북평화통일기원 감리교연합예배가 6월 8일 오전 11시~오후 1시 경기도 연천 태몽전망대에서 있었다.
- 6월 14~15일 여름성경학교 아동부·유치부교사 강습회가 어린이전도협회 주관으로 본교회에서 열렸다.

■ 평화감리교회 한 군 목사

- 동부연회 정책협의회가 6월 4~5일 속초삼성군도에서 감리사, 각부총무, 지방연합회장, 연회실행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한 군 감리사(평화교회 목사)는 6월 6일 오전 11시 화천원천교회에서 복지방 교역자회의를 주관하였으며
- 6월 8일(화)~10일(목) 속초에서 열린 동부연회 감리사 부부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6월 16일(수) 저녁 7시 효자감리교회에서 일본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밀양선교회 찬양선교의 밤을 6월 20일 저녁예배시 가질 계획이다.

■ 성광장로교회 김광국 목사

- 본교회에서 6월 6일 주일 강원도회 농어촌부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 6월 11일(금) 새 성전터에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 6월 13일 주일 기도는 춘천캠프 순방예배를 드렸

- 으며 서울신학교 춘천분교 종강예배에 참석하였다.
- 한국목회자협의회 세미나가 6월 14~16일 교회당에서 열렸으며
- 강원도회 중·고등부 교사강습회가 6월 21일~22일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

- 예수사랑선교회 수화교실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전도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소양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헬몬산악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 6월 25일 연합철야기도회가 본교회 지하예배실에서 있을 계획이다.

■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 윤철중 목사는 중남미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안을 처리하고 27일 귀국하였으며
- 5월 28일(금) 저녁 10시 본교회 초등부실에서 5월 정기 심야기도회를 가졌다.
- 6월 7, 8, 10일 횡성교회에서 강원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교사강습회에 본교회 교사들이 다수 참가하였으며 기드온용사와 제2차 집사교육이 6월 13~16일에 횡성제자화현수원에서 있었다.
- 강원서지방 여전도회 및 권사회 수련회를 안흥 코레스콘도에서 6월 18~19일에 가질 계획이다. (회비 : 15,000원)

■ 동부장로교회 임신영 목사

- 6월 3일(목) 오전 8시 설악산 한화리조트에서 춘천시청 교역자 성경공부모임을 가졌으며
- 임신영 목사는 6월 2일 충주경찰학교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하였다.
- 마리아회3부 주관으로 6월 4일(금)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여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 5월 30일 주일 미국 어스틴순복음교회 지원갑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 교경협의회가 주최하는 춘천시화와 국가번영을 위한 부흥총회가 5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6월 2일(수) 밤까지 본교회 만천벨엘성전에서 열렸으며 춘천지역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
- 주일 저녁예배 시간 장소 변경 : 6월 6일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하고 만천벨엘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 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 성전건축을 위한 현장기도회가 각 지역별로 6월 14일부터 실시되었다.
- 6월 1일부터 부목사들의 사역을 조정하였다.
- 김선진 목사 : 3교구, 행정, 관리, 재무, 새가족모임, 주보, 일대일 양육
- 김신섭 목사 : 2교구, 기회, 예배(성가대 찬양단), 은사배치, 금요기도회, 성례
- 김 일 목사 : 1교구, 선교, 사회봉사, 남녀선교회, 중앙다락방 기도회
- 김승희 목사 : 교육부, 교회학교, 경로대학, 밀양전도대, 일대일 양육, 교회전산

■ 중앙장로교회 사공정 목사

- 6월 6일 오후 본교회 3층 교육관 입당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제2회 농촌봉사활동을 6월 13일(주일) 오후 3시부터 남면 양덕원 제국교회에서 실시하였다.
- 6월 27일 오후예배에 안동 예병복지촌 장애자 찬양단의 초청공연이 있으며
- 표창배 목사(천마산기도원) 초청 1인 부흥회가 7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다.

농촌 봉사활동으로 예수사랑 실천

- 중앙장로교회 사공정 목사 -

중앙장로교회는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으로 제2회 농촌 봉사활동을 6월 13일 오후 3시~8시 30분까지 홍천군 남면 양덕원 제국교회(백대현 강도사)에서 여러 분야의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방, 피부질환, 비노기, 소아,

가정의학, 외과 등 의료봉사와 이·미용봉사, 법무상담, 교육상담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실천할 계획이라고 교회 관계자는 말하였다. <조선화 기자>

강원지방회 목사안수식

하나님의 성회 강원지방회장 김성규 목사(순복음속초교회)는 5월 27일 오후 1시 순복음춘천제일교회당에서 지

방회를 개최하고 목사안수 및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받은 목사는 정진운(도계교회) 김창운(순복음제일교회) 조철(성능

순복음교회) 4명이었다.

안수위원은 김석규, 김주환, 백승호, 표용배, 백창기, 하기철 목사였다.



교회 여름학교 강사교육

7월 중순경 열리는 교회 여름학교(초·중·고) 교사요원 강습회가 교회교과 교단 단계별로 계획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강습회를 마련하지 못한 개교회는 어느 강습회이라도 참석하여 여름학교 운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전도협회 주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 춘천 6월 14일(월) - 15일(화) 석사감리교회, 화천 6월 17일(목) - 18일(금) 화천장로교

회, 양구 6월 17일(목) - 18일(금) 양구성결교회, 홍천 6월 21일(월) - 22일(화) 홍천제일장로교회
· 등록비 : 10,000원(회원교회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문의 : (0361)253-1443(춘천교회) HP)001-320-1443
- 성광장로교회 중·고등부 교사강습회 : 6월 21~22일(성광교회당)
- 강원도회(통합) 유·초등부 교사강습회 : 6월 25~26일(성광교회당)

군자감리교회당 봉헌감사예배 및 목사안수

동부연회 춘천남지방 군자교회(남궁만 목사)는 5월 31일 오전 11시 새성전 봉헌예배와 목사안수식을 거행하였다.

군자교회는 90년 2월 13일 박윤숙 권사(춘천중앙교회)의 헌금으로 설립하였으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089-3번지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예배를 드린 것이다.

김명기 감독(동부연회)의 인도로 춘

천의 4개지방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봉헌식을 가졌다.





김 울 수 작가

- 92~96 봉의묵역회원전 5회 출품
- 93. 여성시대신문서예대전 입선
- 94. 4 교회기념 개인전
- 94. 대한민국 서화예술대전 특선
- 95. 강원서예대전 입선

직장인 정오예배 은혜충만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이영규 장로) 정오예배 위원회(위원장 정인용 집사)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2시에 동부장로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5월달 정오예배를 6월 1일 12시에 드렸다. 이날 이슬비가 내리는 데도 평상시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

으며 춘천교도소 선교회장 김용인 집사의 사회, 도경찰청 선교회장 한성욱 집사 대표기도와 특별찬송이 있었고 "만민의 수준을 높이자"는 조충환 지도목사의 메시지는 직장교회 선교사들의 책무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창립 9주년 선교대회, 성장한 모습

- 설교 임택창 목사, 특강 구자문 전국회장 -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규 장로(춘천석사교회)는 6월 3일 오후 6시30분 석사감리교회 새성전에서 약 300명의 각 직장 회원들과 성서화 기도모임 회원 및 시내 교회 목사,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임택창牧사는 설교에서 천국열쇠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회원들을 깨우쳐 주었으며 구자문 장로(전국직장선교연합회장)는 "직장복음화와 선교전략"이란 특강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필요성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예로 들어 감명을 주었다.

조남진 장로(성서화운동본부장)의

인사와 허 선 장로(농협강원지역본부장) 이학규 장로(성서화기도모임 대표)는 직장복음화와 성서화 사역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김광국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는 기도와 축도에서 열매 맺는 직장선교회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축언하였다. 참석자들은 김영명 집사(직전회장)의 통성기도 인도로 선교회의 활성화와 성서화 조기실현 나라의 번영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석사감리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참석자들을 위해 식사와 다과를 마련, 응송하게 대접하였다.



홍천군청 직장선교회 창립하다



김 차 경 안수집사
(홍천군청 선교회장)

군청 선교회의 창립은 홍천지역에 전해진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5월 27일 오후7시 홍천읍 회암교회

에서 62명의 직장기독인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감하고 직장복음화와 홍천 성서화(聖市化)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창립 총회를 가졌다.

총회 결과 회장 김차경 안수집사, 부회장 김용기 장로, 원은숙 집사, 총무 이상순 장로, 선교부장 조복원 안수집사, 친교부장 서옥순 집사, 감사 김기수 권사, 양태화 집사가 선출되었으며 금후 월례회와 예배, 분기별 헌신예배를 드리고 찬양선교대회, 체육, 등산 활동 등 친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였다.

내무행정기관 연합선교대회

- 연합회와 18개 시군 선교회 -

도청직장선교회장 박무일 장로(총회장)는 98년 출범한 전국 공직자 기독인연합회 사업의 하나로 18개시군 내무행정기관 직장선교회의 연합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시군조직이 파악되는 즉시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기초생활질서와 모범시민

배계섭 춘천시장은 4월 25일자 춘천 시보를 통하여 시민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경범죄 처벌 위반 유형과 범칙금액을 공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도시는 문화도시 모범 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은 문제의 시민이며 수준이하의 시민으로서 춘천에 거주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시화(聖市化)운동은 복음운동인 동시에 모범시민 운동이다.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기초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들을 선도하고 감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 담배꽂초, 휴지, 껌 등 오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유원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를 삼가고 자연보호를 위해 함부로 꺾거나 산짐취하는 행위
 -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
 - 공공장소,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공공 교통수단차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확성기, 전송기, 휴대용카세트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옆 사람에게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행위
 -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 불받이, 하수도, 냉방장치, 환풍장치를 하는 행위
 - 개, 고양이 등을 나돌아 다니게 하여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 ※ 위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회부되거나 3~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결심판 항목

제1조 제1호	빈집 등에서의 잠복	구결
2	휴가의 은닉휴대	구결
4	복합 등 예외	구결
5	허위신고	구결
6	시제 현장연결등	구결
7	오류조작 등 신고불이행	구결
8	관망사정등	구결
9	출판물의 무단제제 등	구결
10	출판물에 정제행위	구결
11	허위광고	구결
12	업무방해	구결
13	광고물 무단철거 등	구결
14	홍표수 사용방해	구결
18	의식방해	구결
19	단체 가입강제	구결
21	타인의 기숙·기제 등 무단조작	구결
23	구결 무단이동	구결
27	위험한 불제사용	구결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구결
33	동물 등에 의한 행태 등	구결
37	성명 등의 허위기제	구결
41	과다노출	구결
42	지분제하 불응	구결
43	자위세 징수 등	구결
46	비밀 출 교습 및 장소제공	구결
47	임료매매	구결
50	출로 등 조작장난	구결
51	무임승차 및 무단취식	구결
53	장난전화 등	구결

※ 제1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를 의미함.

○통고처분 항목

제1조 제16호	오물방치 안쓰레기, 죽은짐승투기 다담배꽂초, 휴지투기	통고
17	노상방뇨 등 야대·소변행위 다침뱉는 행위	50,000 30,000
20	자연훼손	50,000
22	수로유통 방해	20,000
24	불안감조설	50,000
25	음주소란 등	50,000
26	인근소란 등	30,000
2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
29	공작물 등 관리소홀	50,000
30	굴뚝 등 관리소홀	50,000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50,000
34	무단소등	50,000
35	중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
36	공무원 원조불응	50,000
38	전달물품부 허위기제	50,000
39	미신고입	20,000
40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
48	새치기	50,000
49	무단출입	20,000
52	뱀 등 진열행위	30,000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간지하철역구내(승강기, 비스듬 대중교통수단, 가스 등 위험물 저장 판매시설, 병원시설내) 다담배꽂초, 실내체육관 등 기 타 장소	30,000 20,000

99춘천교경연합 대부흥성회

- 경찰서 직원, 목사, 신도들 대상 -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장 차덕수 목사 사와 전수산 경찰서장은 순복음춘천교회 만찬 벤엘성전에서 춘천지역 각 교회 목회자 성도들과 경찰공무원들이 함께한 교경합동 부흥집회를 5월 30일 주일저녁부터 6월 2일 저녁까지 열고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튼튼한 주민복지 치안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이날 초청강사 강풍일 목사(구로제일교회)는 3일동안 밤과 낮 7시간에 걸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였다.

이번 부흥성회에는

- 사회 : 김주환 차덕수 김유식 정상문 조영호 양기택 오승룡 목사
- 기도 : 권기호 전영춘 최해수 이춘일 조영춘 송문식 김준언 목사
- 성경봉독 : 송용학 김종석 지용찬 목창균 정명훈 조득용 최현목 목사
- 축도 : 차관식 이만선 한 군 황영찬 송홍식 정상교 엄대섭 목사가 순서를 맡았으며 찬양과 헌금, 안내, 식사 봉사는 각 교회가 담당 봉사하여 은혜롭게 부흥회를 마쳤다.

(김정주간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하는 사회복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이나 요보호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이바지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단체들이 세월이 가면서 국가행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보조금과 활동사항을 정비해하려는 모습으로 봉사전체의 순수성이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파위를 조성하고 정치세력에 휩쓸리는 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국가재정을 내가 낸 세금을 내가 활용하는데 어찌

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전사회정정이 아니라 그들과 동거동락을 통하여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복지행정을 펴 나갈 때 복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은 저마다 소리나는 핑과 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적이 아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입 보다는 두 귀를 존중하는 자세로 달라질 때 복지사회의 길은 실현될 것이며 춘천성시화를 이루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도청직장선교회 이명숙 집사)

이웃돕기 춘천시민 걷기대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남진)는 강원도와 강원도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 범도민걷기대회를 5월 29일 오후 2시 도청광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참가한 춘천 시민들과 함께 실시하였다.

복지기관에서는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등이었다.

제6회 임마누엘 수화 찬양제

-미자립 교회 지원 기금 마련위해-

춘천임마누엘농아인회에서는 6월 21일 오후 5시 30분 춘천교육대학종합 학습관에서 춘천지역 미자립교회 임대기금 돕기 수화 찬양제를 열 계획이며 매년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임마누엘 농아인 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국제 특수 농아

인 선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제일성결교회, 춘천교육대학 Salt회의 후원으로 열리게 된다.

특별출연: 유진규 내몸짓 · 노래하는 어부들 (김성조, 이도한)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시

성시신문 고문·지도위원 명단

- 고문 16명, 지도위원(목사) 21명 (장로) 28명 -

고문

곽철영 목사(중앙감리교회)
강원하 목사(신포장로교회)
김은일 목사(신복장로교회)
노정관 목사(서부감리교회)
신철웅 목사(남부제일감리교회)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
차관식 목사(춘천제일감리교회)
최운택 목사(성도장로교회)
김정하 장로(성광장로교회)
김홍규 장로(동부장로교회)
윤건배 장로(거성침례교회)
이영일 장로(석사감리교회)
이창용 장로(제일장로교회)
장병호 장로(동원감리교회)
한석웅 장로(성광장로교회)

정상문목사(동원감리교회)
정상교 목사(샘밭침례교회)
한 군 목사(평화감리교회)
하기철 목사(순복음제일교회)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지도위원(장로 등)

김기태 장로(중앙감리교회)
김진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김종혁 집사(강원은행 상임감사)
김택춘 장로(동원감리교회)
남궁 수명 장로(중앙성결교회)
박승택 장로(서부감리교회)
박한병 장로(중앙성결교회)
배계섭 장로(중앙성결교회)
백운선 장로(소양성결교회)
심인섭 장로(신성감리교회)
유근창 집사(순복음춘천교회)
유태회 장로(춘천제일감리교회)
엄대섭 권사(동원감리교회)
이성일 장로(부교목감)
이순훈 장로(제일장로교회)
이용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이필순 장로(남부제일감리교회)
위태식 장로(동원감리교회)
장기호 장로(중앙감리교회)
조은제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조병욱 장로(우두감리교회)
지희준 장로(성광장로교회)
최문길 장로(우두감리교회)
최종인 장로(순복음춘천교회)
허 선 장로(농협강원본부)
허종구 장로(중앙성결교회)
한주식 장로(광장감리교회)

지도위원(목사)

권오서 목사(중앙감리교회)
김동휘 목사(춘일감리교회)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김유식 목사(한신장로교회)
김종만 목사(교동장로교회)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김창환 목사(온누리장로교회)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
사공정 목사(중앙장로교회)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
유진형 목사(남춘천감리교회)
윤태호 목사(늘푸른장로교회)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

춘천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하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매월 성시신문이 발행되어 복음선교지로 쓰여지고 있으며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달 보내주신 내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개인후원자

월 1,000원~5,000원 : 고선희 김명숙 김영달 김영호 김숙자 김현철 박동환
박승희 변순희 성기은 신명숙 안미애 안정숙 오홍수
이경용 이봉자 이병연 이준택 이홍순 임은경 왕순옥
정유양 정용현 정찬복 최경용 최상호 최일정 최영희
최치광 한희현 홍달샘 홍성운 홍순복 황병찬
월 10,000원 : 김남철 김원호 신성균 성기운 안금산 이문자 장기영 정석순 조
광수 최상도 한석웅
월 20,000원 : 김철수 김영명 김태종 양인평 이은식
월 30,000원 : 유근창 조남진
월 100,000원 : 이용규 이정수 조은제

단체후원자

월 10,000원 : 서로사랑장로교회
월 20,000원 : 방주장로교회, (주)춘천택시, 양문순복음교회
예수사랑장로교회(120,000)
월 50,000원 : 효자종합사회복지관
월 10,000원 : 알로에 마임(200,000)
월 868,800원 : 순복음춘천교회

성시신문 특별후원금

50,000원 : 이민섭(전 문공부장관)
100,000원 : 국제선교훈련원(JDM)
500,000원 : 이영일 조은제

자진성금 후원자(1,000~20,000)

김은경(2) 홍성태 김현종 도선길 홍달샘 박상희 김만이 이상림 박기덕 김 현
전종덕 이연실 김용일 이세현 일신장로교회 홍영길 홍신호 이광환 최문길
이봉수 이형숙

1천원으로 성시신문을 발행합니다

성시신문은 춘천의 복음화, 성시화
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복음운동이며 모범시
민운동으로써 내가 해야 합니다.

본 신문은 교회와 선교단체, 성도들

의 소식을 알리는 매개역할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주는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1천원으로 복음
을 전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매월 후원금 : (개인) 1천원 이상
(단체) 1만원 이상 (특별) 5만원 이상
(평생) 100만원 이상

농협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예금주/조남진)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총회개최

장로연합회장 유태회장로(제일감리교회)는 6월27일 오후2시 중앙성결교회
에서 초교파 장로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을 선출한다(오후2시 헌신예
배 3시총회)



專門 建設業

(株)三五建設

미장·방수·그라우팅·철콘·조립식건축
도장공사 철물공사

專務理事

金元鎬

남춘천 침례교회 집사

江原道 春川市 碩士洞 666-13

TEL : (0361)262-2696~7

FAX : (0361)262-2746

핸드폰 : 018-232-3450

지역교회탐방



임택창 목사

지난 30여년간 눈에 보이도록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석사교회를 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4~5년전만 해도 춘천의 변두리인 석사동에 작은 주택들을 앉은 채로 하고 산 언덕 아래 세워진 작은 교회가 오늘과 같이 위용을 자랑하는 춘천 제1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택창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목숨을 건 기도와 전도 열정 그리고 성도들의 피땀 어린 희생적인 봉사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교회는 1922년 4월 5일 설립(강조원목사)되었으며 일제(日帝)와 공산치하에서 강제 폐쇄당하였으나 6·25전란이 끝나고 천막교회로 다시 출발하였으며 1955년에 교회당을 신축하였다.

1968년 임택창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1979년 200여명의 교회로 부흥되었으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후 눈에 띄는 부흥성장을 보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금년 4월 5일 입당한 새성전은 대지 1800평에 연건평 1200평으로서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새성전 새성도 새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성전의 외형에 나타난 3층의 의미는 사도바울의 3층천 성령체험(고후 12:12)을 근거한 것으로서 전면대형 하늘색 유리는 하늘을 상징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체험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절기행사 등에 사용할 자동이동식 무대. 강단과 연결 특수제작

살아 움직이는 석사교회

- 새성전 1200평, 성도 1500명 -

또한 측면과 후면은 노아의 방주(배) 모습이며 전면의 황금색 대형 십자는 (가로 7m, 세로 19m) 석사교회 성도가 십자가의 진리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전 내부시설의 의미로서 강단에 장식된 10m의 미송루바는 이음새가 없도록 특수제작한 것이며 강단 중심부에서 성전기둥인 아진과 보아스의 스텐기둥이 있고 커튼막은 흰색, 녹색, 보라색, 자색으로서 교회절기를 생동감있게 표현한 것이다.

십자가는 신학적 고증에 의해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과 같은 크기로 고안되었으며 강단시설은 자동이동식 무대로 절기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멀티비전과 현대예배를 위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였으며 무대막이 상하로 움직이게 하여 강단의 신성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고 무대조명은 설교자를 잘 볼 수 있게 조작할 수 있으며 측면 유리창 우편은 신약적 성화, 왼편은 구약적 성화로서 3중 스텐그라스를 설치하여 예배 분위기를 실감있게 건축하였다.

임목사님은 33년간 목회하면서 3속이었던 작은 교회를 88속으로 질적 양적인 부흥을 일으켰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목사의 길을 걸어오셨다.

참으로 어려웠던 일은 돈 한 톨 없이 교회를 두차례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 기적적으로 완공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뻐던 일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춘천방송 건립추진위원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주위의 방관 속에서도 국회의장, 장관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를 찾아 다녔던 열성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고 당시를 회고하였으며 수차례의 부흥성회를 통하여 2억원의 방송국 건립자금을 조달하고 CBS 설립허가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임목사님은 석사교회 담임목사인 동시에 춘천지역을 대표하는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온 분이다. 그는 담임교회의 부흥은 물론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 사역에도 앞장서신 우리시대에 보기도문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파를 초월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다.

석사교회의 교세는 목사2, 전도사4, 장로21, 성도 1,500명으로써 믿음으로 협력하여 오늘의 교회를 세웠으며 내일을 향해 더욱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 원로목사 : 박기조
- 부목사 : 손학균
- 심방전도사 : 오은빈, 신미자
- 교육전도사 : 김혜경, 임혜성
- 장로 : 이영일, 김유석, 이학규, 이무식, 황용하, 김수길, 김문수, 최정규, 이영규, 갈재웅, 홍성운, 박무일, 이용규, 박홍도, 신상룡, 박병구, 황정섭, 이동화, 이 청, 김철수
- 협동장로 : 김광수
- 성가대지휘 : 김철수, 최영희, 김혜



경. 이영규

· 반주자 : 성순주, 이은숙, 심선미, 서은혜



기독교 춘천석사교회

CHUNCHON SEOGSA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임택창

Pastor : TAEK CHANG LIM D.Min